

인천공항, UAM 등 신기술 선보여... 미래공항 청사진 제시

세계 공항 최초 'CES 2023' 참가
미래공항 주제로 인천공항관 운영
마이애어포트·스마트패스 등 구현
"공항산업 기술력 전 세계에 알려
새 기술 개발·주도 미래공항 선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대면행사로 개최된 'CES 2023'에 세계 공항 최초로 참가해 인천공항관을 운영했다.

공사 측은 "인천공항관"을 조성하고, 메타버스, UAM, 생체인식 등 미래신기술과 융합된 공항 여객서비스 및 운영기술을 전시함으로써 미래공항의 콘셉트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CES 2023 인천공항관은 미래공항을 주제로 ▲집에서부터 탑승까지 공항 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일부터 8일(현지시각)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3에 참가하여 인천공항관을 운영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인천공항관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다양한 기술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객서비스의 전 과정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첨단 공항운영 방식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집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생체정보로 공항을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애어포트와 ▲스마트패스, 미래항공교통 이동수단인 ▲UAM(Urban Air Mobility), 장소에 구애 없이 정확한 안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천공항 주차 내비게이

션과 ▲인천공항 AR 실내내비게이션, 디지털트윈 기반의 ▲VR 인천공항 가상체험 서비스와 ▲3차원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및 자율주행으로 공간정보를 수집하는 ▲메타에어포트까지 인천공

사와 ▲인천공항 AR 실내내비게이션, 디지털트윈 기반의 ▲VR 인천공항 가상체험 서비스와 ▲3차원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및 자율주행으로 공간정보를 수집하는 ▲메타에어포트까지 인천공

항과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한 다양한 신기술들이 적용된 변화하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실감나게 구현했다.

또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CES 인천공항관 현장에서 국내외 우수 IT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미래공항의 모습과 인천공항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누고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김 사장은 "세계 공항 최초로 CES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공항산업 기술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공사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항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직접 주도해 나가므로써 미래 공항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1200만원 지원

고용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오늘부터 접수... 기업당 최대 30명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취업준비생인 청년 채용시 2년 간 최대 120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참여 신청을 9일부터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난해 도입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받는 대상도 확대됐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포함,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자립이 어려운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명이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있

는 지역의 운영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

지난해 말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채용한 청년은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 복구작업.

'태풍 피해' 포항에 1231억 재정지원 사업

산업부, 중소기업에 1089억 추가편성

작년 10월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에 올해 7개 사업, 1231억원 규모 이상의 재정지원 사업이 확정됐다.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도 최대 30%까지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난해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2022년 10월 31일 ~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이에 따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의 설비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89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저리융자(1.9% 고정금리, 최대 10억원)로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또 폭우·태풍 등 긴급재난상황의 적기 대응을 위해 포항 철강산업단지 오벽·차수벽, 빗물 펌프장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내 통합관제센터 건립을 통해 산단 내 재해 사전 감지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GS리테일, 판촉비용 전가 과징금 15.8억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촉추진행사를 방송시간 외에도 임의로 적용하고 해당 비용을 떠넘기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촉추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이란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혼합한 방식으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GS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

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고, 이에 따라 방송시간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촉추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을 기재했을 뿐,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하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판촉행사 진행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고, 납품업자는 실제로 판촉추진합의서에 기재된 50대 50의 분담비율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분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 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재 예방시설 투자기업 최대 10억 저리 융자지원

올해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에 투자한 기업에 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최대 10억원 융자해주는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20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이다.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연 이자 1.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안중주 공단 이사장은 "산재예방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융자금을 지원해 자기유발 예방체계 구축과 사망 사고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국표원, 디지털전환 핵심기술 표준화 추진

정부가 수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 표준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첨단·주력산업 선제적 표준화', '시장 맞춤형 기업지원', '국제표준화 협력강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첨단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갖도록 선제적 표준화에 집중한다.

이에 자율차(자율주행 레벨),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반도체(지능형반도체 소자 성능 평가)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표준화하기

로 했다. 특히 올해를 국가표준(KS)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해 KS 데이터 개발성 확대 및 인공지능 산업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태양광 모듈), 수소·연료전지(성능평가기준), 사후 전지(품질기준) 표준화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조성된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선출 계기로, 국제표준화 정책의 롤메터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ISO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위원회 설립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